

정부 “불법 공매 잡겠다”...개미들은 “못 믿어”

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7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이번 정책이 ‘양고없는 전방’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가운데) 등이 7월 28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검찰, 고액 벌금 부과·범죄수익 박탈 한국거래소·금감원에 전담조직 확대 개인투자자 “이번 정책 기대치 無” 공매도 유지·상환기간 미개선 불만

●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기를 부여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 투자가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면, 공매도 투자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 만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 받았고, 과태료를 20% 감경 받아 8억 원

납부에 그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CLSA증권(6억 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개미투자자의 불신은 여전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대여 없이 미리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리 매도 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 된다. 그렇다보니 결제 불이행 등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법원에 계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구형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기화강리를 정례화하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도 확대한다.

공매도 주요 세력으로 꼽히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주식을 빌리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는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마감 대차잔고)를 포함해야 한다.

반면 개인 공매도 기회는 확대한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그간 개인은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기관은 대개 담보 비율이 105~120%에 불과해 ‘가을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에 해당하면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주가 하락률 기준은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은 2배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의 ‘불법 공매도와와의 전쟁’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미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평소 개미투자자들이 주장해온 공매도 전면 금지 및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불평등의 가장 큰 핵심으로 꼽는 상환기간의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즉 주가 상승으로 공매도 손실이 났을 때, 기관과 외국인은 연장을 통해 손실을 피하고 결국 개인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폐지 및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에 기대치가 거의 없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여름철 탈모는 ‘판시딜’로 관리하세요
“입증된 의약품으로 관리해야”...단독 복용 가능



동국 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판시딜’과 함께하는 여름철 탈모관리 캠페인(사진)을 진행했다. 여름철 탈모 증상 예방을 위해 우선 청결한 두피

관리와 자외선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습기가 많은 여름에는 체온과 비슷한 물로 머리를 감고 잘 말려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신중하게 쓸 것을 권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여름 탈모 관리가 걱정된다면 꼼꼼한 자외선 차단과 함께 판시딜처럼 입증받은 의약품으로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판시딜은 모발과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 등과 모발 영양성분인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용자의 79%가 모발이 굵어졌으며, 빠지는 모발의 수가 45% 감소하고 전체 모발 수는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복용은 물론 탈모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남성호르몬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보조요법으로 병용할 수 있다. 성욕감퇴나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관련 부작용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대한항공, 로마 바르셀로나 운항 재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중단했던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2개 노선의 운항을 2년 6개월 만인 9월부터 재개한다. 인천-로마 노선은 9월 1일부터 매주 화, 목, 토 주3회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해 로마 공항에 오후 7시30분 도착한다. 귀국 편은 로마공항에서 현지시간 오후 9시25분에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다음날 오후 3시40분에 도착한다.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은 9월 2일부터 월, 수, 금 주3회 운항된다. 인천국제공항을 오전 11시40분에 출발해 바르셀로나 공항에 오후 7시에 도착하며, 귀국 편은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현지시간 오후 9시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다음날 오후 4시5분에 도착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장거리 네트워크 중심 항공사로서 노선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SKT, 새 5G 요금제 5일 출시...이통사 간 경쟁 불붙나

중간요금제 포함 5종의 요금제 선배 베이직, 월4만9000원·데이터 8GB 50~100GB 세분화 필요하단 지적도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새 5G 요금제를 선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도 새 요금제를 준비 중으로, 이통신사 간 요금 경쟁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SK텔레콤은 일반 3종과 온라인 전용 2종 등 총 5종의 신규 5G 요금제를 5일

출시한다. 일반 요금제는 ▲월 4만 9000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최대 400kbps)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 9000원에 24GB(소진 시 최대 1Mbps)의 ‘베이직플러스’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X 프리미엄플러스’다. 특히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구간인 베이직플러스가 관심을 끈다. SK텔레콤은 이번 개편으로 5G 요금제가 1만 원 간격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사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몰에서 가입할

수 있는 ‘5G 언택트 플랜’ 2종도 새로 선보인다. 약정·결합 조건 등 부가혜택을 없앤 대신 기존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신규 요금제는 ▲월 3만4000원에 8GB(소진 시 최대 400kbps)의 ‘5G 언택트34’ ▲월 4만 2000원에 24GB(소진 시 최대 1Mbps)의 ‘5G 언택트 42’이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고객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고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5G 요금제를 선보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다. 50~100GB 구간 등에서 세분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도 8월 중 새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SK텔레콤보다 파격적인 조건의 데이터 제공이나 요금 수준을 내세울 경우 이통신사들의 요금제 경쟁이 본격화할 것 이란 전망이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그동안 요금제 출시 진행 과정을 보면 요금제 구간 설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등 통상적으로 경쟁이 있었다”며 “KT와 LG유플러스가 다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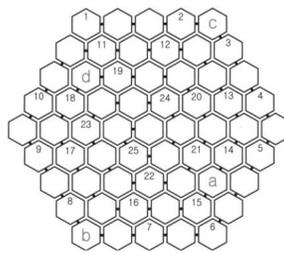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9		8			4		
6		1				3		7
	2		7		1		6	
		5		4		2		
1			3		9			6
		6		2		4		
	5		4		7		8	
7		8				5		4
	6			1			3	

■ 스도쿠정답

2	8	7	1	5	6	9	4	3
4	6	5	9	2	8	1	7	3
1	8	9	6	7	3	5	2	4
3	1	5	2	8	9	7	6	4
9	5	8	6	4	7	1	3	2
6	2	9	4	1	5	8	7	3
8	9	6	1	3	7	2	5	4
7	4	3	7	5	1	8	9	6
5	7	1	2	8	9	7	6	3
9	2	6	7	5	1	4	3	8

■ 낱말문제



01. 생각을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함. 02. 성이나 왕궁의 바깥 테두리에 있는 문. 03. 능묘 앞에 세우는 문신 형상으로 된 돌. 04. 돌로 지은 궁전. 05. 앞으로 잘될 희망이 있음. ‘전·유·오’ 06.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

함. 07.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라는 뜻. ‘오갈굴’ 08.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구. 09.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르는 곳. 10. 물고기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11.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돈. 12.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 13. 학용품·사무용품을 파는 곳. 14.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15.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16. 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 17. 그물처럼 쳐 놓은 거미줄. ‘오주·’ 18.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 19.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20. 본선(本船)에 실어 조난한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쓰는 작은 배. 21. 버스나 열차가 일정하게 머무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d칸을 이어놓으면 식물의 이름이 됩니다.

